

교회 탐방

제 1 호: 루이빌 한인 장로 교회

PC(USA) 한국어 웹사이트의 탄생과 함께 "교회탐방"이란 코너를 마련하여 교단내에 300여개가 훨씬 넘는 한인교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교회탐방" 제1호로 교단본부가 위치한 켄터키 주 루이빌 도시에 있는 루이빌 한인 장로 교회를 찾아가 본다.

["교회탐방"에 기재되길 원하는 교회는 총회 사무국 최정석 목사에게 연락 바란다 - luke.choi@pcusa.org; 502-569-5083]

루이빌 한인 장로 교회는 1980년 2월 17일 이연길 목사님과 함께 여섯 가정이 모여 Fourth Presbyterian Church에서 시작 되었다. 11년 후인 1991년 2월 17일에 새로운 교회를 매입 및 이사하게 되어, 1991년 4월 14일에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다.

2004년 3월에 공동의회에서 Calvin Presbyterian Church로 이전을 결정하고 Calvin Presbyterian Church와 공동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예배는 오전 10시 같은 시간에 두 교회가 연합으로 어린이와 youth는 Contemporary Worship으로 드리게 되었다.

그러다 2015년 7월부터는 Harvey Browne Presbyterian Church로 이전하게 되고 2019년 1월부터 Harvey Browne 교회의 Chapel을 한국 교회의 새로운 예배당으로 허락을 받아, 2019년 5월 20일 Mid-Kentucky 노회를 초청하여 Harvey Browne과 한국 교회 사이의 새로운 Covenant 및 Dedication Service를 갖는다. 또한 2019년 6월 2일에 루이빌 지역 모든 한인 교회를 초청하여 성전봉헌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는 현재 담임목사 한재신 목사 리더아래 (부목사 김요한 목사) 당회와 안수집사 회로 구성된 사역팀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2019년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어로 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서광중, 이성일 선교사의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과 오빠 센터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비록 비교적 아담한 교회지만 총회본부와 가까운 이웃이기에 총회 한인 스태프 가족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총회 한인 목회실에서 사역하다 은퇴한 김선배 목사 (사모 김춘자 목사) 또한 이 교회 멤버로 출석하고 있다.

앞으로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는 Harvey Browne 교회와 협력하여 어린 아이들부터 유스까지 연합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Worship에서 수여한 \$18,000의 Vital Worship Grant로 두 교회 간에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합 예배와 연합 활동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루이빌 한인 장로 교회 웹사이트: <http://www.kpclouisville.org>



(루이빌 한인 장로 교회와 Harvey Browne의 목회자들이 한데 모여서)

초대합니다!

봉헌 감사 예배

2019년 6월 2일
주일, 오후 4시

설교: 최관신 목사
아프리카 피그미족 선교사
현 클락스빌 은혜 교회 담임



**루이빌 한인 장로 교회**
311 Browns Ln. Louisville, KY 40207